

2017년 제1차 인재채용 공고(PD 초빙공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www.kaia.re.kr)은 국토교통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신기술 인증·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국토교통기술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초빙공모합니다.

I 초빙분야 및 자격기준

○ 분야

분야		인원	관련 경력 (아래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
PD (Program Director)	미래형 도시·빌딩	○명	▪ U-city 관련 연구·사업 경력 ▪ 제로에너지/그린빌딩 관련 연구·사업 경력 ▪ 도시통합관리/시설지능화 관련 연구·사업 경력 ▪ 기타 도시계획설계, 도시관리솔루션 관련 연구·사업 경력
	IT (공간정보)	○명	▪ GIS 등 공간정보 관련 연구·사업 경력 ▪ 3D 모델링, 데이터처리분석 관련 연구·사업 경력 ▪ 공간정보 오픈소스 및 인프라구축 연구·사업 경력 ▪ 기타 공간정보 취득·처리·응용 등에 해당하는 경력

※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 '첨부. PD제도 소개 및 운영계획' 참조

○ 응시자격

-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경력자로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해당분야 4년제 대학 부교수급 이상
- 민간연구소 수석연구원급 이상
- 출연연구기관 책임연구원급 이상

※ 소속기관으로부터 파견 가능

- 전일제 근무가 가능한 자 ('17.2월말부터)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우대사항

-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Ⅱ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17. 1. 13(금) ~ '17. 1. 31(화), 18:00 까지

※ 접수마감시간 이후 도착분에 대해서는 미접수 처리되니, 가급적 마감 하루 전까지 접수요망

- 접수방법 : recruit@kaia.re.kr 에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입원지원서(우리 원 홈페이지 및 취업포털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입원지원서 제출시 파일명 및 이메일 제목은 예시와 같은 형태로 제출
(예시 : 입원지원서(PD)_미래형 도시빌딩분야(성명))

Ⅲ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절차



○ 전형별 일정

구분	서류전형	최종면접
일정	'17.2.6(월)~2.8(수)	'17.2.15(수)~2.16(목)
합격자 발표	'17. 2. 10(금)	'17. 2. 17(금)
합격통보	개별통보	개별통보
비고	-	장소 · 시간은 별도 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서류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안내일까지 제출

제출
서류

- 학력증명서(학위수여(예정)증명서)
- 대학교이상 전학년 성적증명서(편입일 경우 편입전 포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해당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입원지원서에 기재한 연구개발 참여실적 증명 등

※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또는 제출서류와 입원지원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전형결과에 관계없이 탈락처리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 가능하지만, 동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우리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람

○ 기타사항

- ‘입원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는 금번 채용공고에 공지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초빙분야 분야별 또는 전형 단계별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원조회 결과 등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연봉은 우리원 정규직 수석급에 준하여 경력산정 후 산정(경영평가성과급 별도)하며,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동일함

○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경영지원실 (031-389-6433, 6424)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인재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시다.